

5가지 전도사역을 통해 가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린 사도요한

-복음으로 여는 요한이서-

이사야 7:14, 요한이서 1:12-13

정윤돈 목사님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어 지, 정, 의를 갖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해서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땅 끝까지 237나라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세계복음화 다락방전도협회의 제자와 주역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응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은 복음의 최고의 핵심이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이다. 우리들이 현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전도사역의 시작이요 끝은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것이다. 본문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런데 그 분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지 이해를 못한다. 교회 다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줄 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지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잘 알려주어야 한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 분이 임마누엘 즉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영접할 때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야 악몽 안 꾀다. 재앙과 저주,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고 천군천사 동원된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었을 때 최초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낼 것이라는 언약이다. 원시복음이라고 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예언하였다. 이 말씀의 성취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말씀이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신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끝난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모든 문제가 생긴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신분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신분이 철저한 시대였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갖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바란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하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짊어지고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도 약 90에서 100세까지 살았다고 본다. 그는 요한복음, 요한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그 평생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힘썼다. 그 요한 사도의 개인전도사역을 모델적으로 집약해 놓은 것이 요한이서이다. 이 안에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5가지가 자연스럽게 편집되어 있다. 그 다섯 가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사역, 지교회이다. 요한이서는 한 가문의 여인에게 보내 개인적인 편지라고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5가지 성경적인 전도전략을 발견할 수 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사도행전이 2장 이후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런데 전도운동 훈련을 받다 보니 그 전도 전략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론 말씀에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인 5기조를 중심으로 요한이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기초이지만 모든 것이고 최고의 것이다.

1. 첫 번째는 다락방이다. 먼저 용어를 정라하겠다. 마가다락방과 다락방전도운동과 다락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다. 마가다락방이란 마가의 집에 있던 다락방을 의미한다. 집 위에 달려 있는 큰 방이다. 이 장소는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충만을 받은 장소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에 나와 있다. ‘다락방전도운동’이란 마가다락방에 모인성도들처럼 ‘오직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성도들처럼 ‘오직복음’만 전하고, 그 전도방법도 사도행전적이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자고 모인 우리 단체의 전도운동을 의미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목숨을 걸지는 않지만 무슬림 국가는 실제로 목숨을 걸고 숨어서 전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이다. 루터의 종교개혁과 갈빈의 신학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장로회라는 정치제도를 따른 것이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개혁적이다. 우리 장로교도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가버리니 계속 복음으로 개혁을 하자는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도 시간이 지나다보니 장로교도 이상하게 변했다.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와 복음, 전도를 다시 강조하자는 의미이다. 훈련을 잘 받고 교회에서 사역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 되어 237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 교회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교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다락방’이란 현장에서 소수가 모여 영접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 치유사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락방은 5번의 만남, 10번의 만남 등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해도 복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다락방의 끝은 스스로 예배에 참여하고 스스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다락방은 복음편지를 가지고 10번의 만남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새생명생활, 현장복음메시지 등 여러 가지 교재를 가지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오랫동안 해야 하는 다락방은 치유다락방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스도와 전도로 결론 안난 분은 오랫동안 케어해 주어야 한다. 어떤 권사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10년 동안 다락방을 하신 경우도 있다. 여러분이 복음의 원조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시조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후대들이 고통을 안 당한다. 사도 요한도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다락방사역을 하고 있다. 요한이서 1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러한 영접운동이 다락방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이 영접운동이 생명운동, 구원운동이고 그 순간 사탄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잘 몰라도 일단 영접은 시켜놓고 와야 한다. 예비된 분들은 간단하게 말을 해도 영접한다. 안 할 사람은 아무리 길게 해도 안 된다. 300명 정도 제사를 해보면 다락방 할 30명이 나오고 그 안에서 제자 3명이 나온다. 다락방사역의 가장 중요한 키는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든지 그리스도와 복음메시지 전체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해서 복음을 바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은 메시지가 안 들리고 자기 문제만 이야기한다. 그 말을 다 들어주되 원색적인 복음만을 또 설명하고 설명해주어야 한다.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고 하면 다락방이 지교회로 바뀐다.

2. 두 번째는 팀사역이다. 팀사역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말씀 드리겠다. 특별히 팀사역이란 단어는 다락방전도협회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전도용어 중 하나이다. 팀사역과 팀전도는 다르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팀으로 문을 열었다. 그렇게 해야지 현장의 흑암을 꺾고 전도가 된다. 팀사역이란 영적인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이서라는 편지를 통하여 여자 성도들(부녀, 부인, 귀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팀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팀사역의 주된 주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와 교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과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다. 요한 사도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언택트와 미디어를 통하여 비대면 전도사역을 했던 것이다. 당시 미디어는 파파루스에 적어서 보내는 것이었다. 지금은 여러 미디어가 있지만 사실 한계가 있다. 그럴 때 대면을 하면서 5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요한 사도가 부녀들에게 팀사역한 내용을 보겠다. 요한이서 1장 5절 앞부분에 보면 “부녀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마 이 분이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1장 5절과 6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새 계명이고 아니고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처음 가진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졌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계명이란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다. 5절과 6절 말씀은 사랑과 진리에 대한 미묘한 상관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 설명을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사랑을 해야 하지만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진리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랑한다고 해서 이단과 살인자, 도둑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방관하거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저변에 편의점을 갖는데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앞에 앉아있더라. 지나가다 눈이 마주쳤는데 모른 척하고 갔다. 술 마신 사람은 시비걸기를 바라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 지나간 것이다. 그분들이랑 만나서 대화하고 시비 걸리면 안 된다. 해외에 나가면 절반은 사기꾼이다. 해외 나갈 때는 잘 걸러서 소개 받아서 가야 한다. 안 그러면 큰 문제를 당할 수 있다. 사랑한다고 잘 해주려고 해서 아무한테나 친절하게 하면 안 된다. 주인이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뀐다. 치유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바뀌지 않는다. 교회 안에 치유 중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도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팀사역을 했던 것이다. 왜냐하

면 부녀들과 그 자녀들이 사랑과 나쁜 사람들을 조심해야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연약함을 사단은 교회를 할기 위해 이용한다. 여러 분이 거기에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9절로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이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0계명과 교회와 양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다음으로는 이단을 조심하라는 탐사역을 하고 있다. 순수한 사람은 이단에 넘어가 버린다. 목사님들도 어렵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만나면 안 된다. 조심하라. 악한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기도하면 천국천사가 여러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다 보호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한다. 요한이서 1장 7절로 8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다.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최대교회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명품에는 짝퉁이 많은 것처럼 성경이 역사상 최고의 명품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용한 이단이 많다. 그래서 진짜 복음과 성경의 기록목적을 정확히 잘 이해하여야 한다. 내 기준, 수준, 표준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다른 것(나중심, 상처 등), 틀린 것(돈, 육신), 망할 것(성공, 자리 등)을 동기로 가지고 있으면 이단들에게 넘어가기 쉽다. 그런 건 오직이 아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같은 교회에서 오래 못한다. 교회에 불만있는 사람이 신천지에 잘 넘어간다. 7절에 계속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세계교회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나타났던 이단사상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이 사상을 ‘영지주의’라고 한다. 신천지도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 7절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인들이다. 요한 사도는 탐사역을 통하여 이단을 조심할 것을 부녀들과 그 자녀 램넌트들에게 권하고 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도들은 교역자들에게 보고하지 않는 성경공부나 사적인 만남을 갖지말아야 한다. 신천지도 성도를 데리고 가서 성경공부하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다. 숨기다 보면 문제가 커진다.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먼저 스스로 조심해서 잘못된 이단과 잘못된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교제하기 전에도 먼저 목사님과 부모님께 말해야 한다. 또 8절에,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교회에서 교육받은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겸손히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현장에 대한 인턴십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 8절 끝부분에서는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과 천국에서 놀라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신앙의 발판 10번째에서도 나오는 것과 같이 전도자는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7절과 8절 말씀은 요한 사도가 이단과 나쁜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탐사역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영적인 탐사역을 미리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영적인 백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인 탐사역을 통해 치료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세 번째는 미션홈이다. 성경에는 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다. 루디아의 집(행16:15)에서부터 빌립교회가 시작되었다. 아손의 집(행17:5)으로부터 데살로니가교회가 시작되었다. 마가의 집안에 있던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예루살렘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사명자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하다가 지역을 대표하는 회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의 사진을 보겠다. 한국의 초기의 교회들도 모두 집에서 시작하였다. 첫 번째 사진은 1895년 최초의 초가집이고 두 번째 사진은 그 후에 기와집으로 발전한 소래교회이다. 이 교회 출신들이 남한에 와서 교회를 많이 세웠다. 미션홈이라는 용어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가정미션홈이다. 이 의미는 가정, 가문을 복음과 전도의 명분가로 만들기 위한 가문복음화 사역을 의미한다. 우리 자녀들을 흑암 가득한 사탄의 나라와 세상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가정에서부터 하는 것이 가정미션홈 사역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으로 만드는 사역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한이서 1장 4절에 보면 이 이 여인의 자녀들은 복음 안에서 영적서밋으로 잘 성장한 것 같다. 엄마는 조금 부족해도 램넌트들은 잘 성장할 수 있다. 요한이서 1장 4절을 보겠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우리 후대 램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면 얼마나 기쁘까. 미래가 있는 것이다. 미션홈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전도 사명자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 단어를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미션홈훈련’ 또는 ‘사명자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다락방도 그냥 다락방이 있고 ‘사명자다락방’이 있다. 사명자다락방을 ‘미션홈제자다락방’ 또는 줄여서 ‘사명자미션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션홈훈련이란 삶을 훈련하는 현장이다. 왜냐하면 삶이 되어지지 않는 제자는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사명자 역할을 할 수 없다. 사명자는 삶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명자모임을 미션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돈에 깨끗하지 않고, 술 마시고 그러면 삶까지 치우게 줄 수 있는 미션홈제자로 쓰임 받을 수 없다. 요한 사도도 요한이서에서 이 부분을 설명

해 주고 있는 것이다. 미션홈제자는 영혼도 마음과 생각도 삶도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 또한 요한이서 1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네 자매의 자녀들이 문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매의 자녀라면 ‘조카’들이 된다. 그 자녀들이 문안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조카들이 요한 사도로부터 다락방을 받고 미션홈사역을 통해 전도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을 미션홈으로 만들고, 미션홈사명자로 거듭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조카, 친척까지 모두 복음화되기를 축원드린다.

4. 네 번째는 전문사역이다. 전문사역이란 자기의 달란트와 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전도사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더 쉬울 것 같다. 어린이사역에 적성이 맞는 분들은 어린이전문사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청소년 전문사역, 대학전문사역, 청년전문사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분들은 무당전문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전문분야로 가서 상담전문사역, 사회복지전문사역, 연예인전문사역, 찬양전문사역, 군인, 경찰, 정치인전문사역, 교사전문사역, 미디어영상전문사역 등 다양한 분야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복음 가진 이분들이 전도를 위해 모일 때 이것을 ‘전문사역’ 또는 ‘전문지교회’라고 한다. 결국은 모든 나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 램넌트 후대들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목회자들보다 이 전문인들이 3단체, 3축삼공교, 3가지 이념현장을 살릴 수 있다. 3단체는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3종교는 불교, 천주교, 무슬림, 3이념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과학주의이다. 이 현장은 목사들이 살릴 수 없다.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에스더와 같은 전문인, 산업인, 정치인들이 살릴 수 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사역을 했던 전문산업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글라이다.(행18:1-4) 이 부부를 우연히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평생 사도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하였다. 이 부부는 로마복음화의 주역으로 까지 쓰임 받았던 전문인들이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방법의 기초 중 네 번째인 전문사역이다.

5. 다섯 번째는 지교회이다. 지교회란, 같은 발음이지만 두 가지의 지교회가 있다. 한 단어는 ‘가지 지’를 사용한 지교회이고 다른 지교회는 한자로 ‘땅 지’자를 사용한다. ‘땅 지’자를 사용할 때 지교회는 참사랑교회 같은 지역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교회는 ‘가지 지’를 사용하는 지교회이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하면 지교회가 시작되는 것이다. 전도를 하고 싶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 사람이 지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개인지교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요한 사도는 소아시아지역에 많은 지역교회를 세웠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 양육 받은 많은 성도들과 램넌트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날마다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개인지교회운동을 하다가 지역교회의 응답까지 받았다.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제국까지 복음화를 시켰던 것이다. 약 250년 동안 10명의 로마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는 313년에는 자유롭게 되었고 392년에는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미션홈, 지교회를 막을 수 없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지교회운동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여인과 그 자녀들과 가족들은 결국 자신의 살고 있던 현장에서 지교회운동을 하다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오늘도 요한이서를 중심으로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의 언약은 모든 성도들이 참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다락방을 하거나 받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에 가서 탐사역을 통하여 잘못된 이단사상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지금도 현장에는 신비주의, 율법주의와 이단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3. Dream, 드림 꿈이다. 참된 미션홈 사역을 위하여 24시간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미션홈사역의 절대목표는 서로 사랑 할 수 있는 체질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전문사역을 위해 이미지트레이닝을 해야 하겠다. 하루에 10분만 집중해도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 계획과 실패 계획을 생각하며 준비를 한다.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모든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린다.
5. Practice, 실천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현장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지교회로 만들어야 하겠다. 300영집, 30다락방, 3지교회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5가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세워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요한이서를 통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5가지 전도운동을 통해서 237나라와 5000종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모두 다 현장에서 복음을 위하여 성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